

# 청년 일자리 4년새 37만개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젊은이들의 절대적인 수가 현격히 줄고 있지만 이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어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개선되지 않음은 물론 청년실업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435만2천명이던 20대 젊은 취업자는 올해 10월 398만3천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8개월만에 36만9천명이나 감소했다.

20대 연령층의 전분기 대비 취업자수는 2004년 3·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해 올해 1·4분기까지 11분기 연속으로 줄다가 올해 2·4분기에 0.0%를 기록, 주춤

## 저출산 여파 20대 54만3,000명 감소 기업 신입채용 줄어... 청년 실업 가속

한 뒤 3·4분기에 또다시 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도 큰 폭으로 줄어 2003년 720만3천명에서 올해는 10월까지 666만명으로 54만3천명이나 크게 줄어들었다.

인력수요가 그대로라면 20대 청년인구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 경우 노동시장에서 젊은이들이 '귀하신 몸'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들 20대가 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역시 급속히 줄고 있어 20대 실업률은 2003년 3·4분기 7.1%에서 올해 3·4분기 6.9%로 불과 0.2%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청년 취업자수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한 데다 일을 하려는 젊은 층의 절대적인 수가 줄

어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직업 문화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도 희박해지면서, 기업들도 즉시 일을 시킬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해 신입사원 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청년층 스스로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은 굳이 들어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 공부부를 더 하는 등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기업문화도 숙련된 인력을 바로 채용해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에 비해 청년 노동력은 공급과 수요 모두에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 불량 레미콘·아스콘 추방

### 건교부, 개정 관리지침 내년 시행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은 100억원 이상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반입될 경우 최초 반입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6개월 단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량 이상을 사용할 경우 사전점검과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교량 등 중요 구조물을 짓는 데 활용되거나 특수배합설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을 통해 받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공급 중단, 공급일 미승인, 공급일 승인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벽화에 담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25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서울 어린이대공원 아외음악당에서 열린 '홈퍼니(Home+Company)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의미가 담긴 벽화를 그리고 있다.

## “조직 역량 높이려면 목표·공감대 중요”

### 삼성경제연구소 CEO 317명 설문

국내의 최고경영자들은 조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성과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5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영자대상 사이트인 SERI CEO가 회원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분명한 목표설정 및 공감대 조성'을 꼽은 응답자가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더의 강력한 의지' 25.2%, '유능한 인재' 12.1%, '간결한 커뮤니케이션 구조' 4.4%, '실적에 대한 충분한 보상' 2.5%였다.

또 자기조직의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 물었더니 '미숙련된 업무처리 능력'이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분명한 목표' 26.5%, '강력한 리더십 부재' 17.4%, '복잡한 보고체계' 12.9%, '불충분한 자금력' 6.6% 등이었다.

## 맞벌이 직장인 10명중 3명

### “자녀양육 부모에게 맡긴다”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자녀양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리서치 전문가인 엠브레인과 함께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장인 596명을 대상으로 양육 방법(복수응답)을 설문한 결과 '부모님에게 맡긴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공립 또는 사설 어린이집'(24.7%), '아내 또는 남편'(13.9%) 등의 순이었다.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2.3%에 불과했다. 맞벌이 직장인 49.3%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집 인근에서 산다고 답했다.

외벌이 직장인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응답은 38.9%로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보다 낮았다.

맞벌이 직장인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사는 이유에 대해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38.8%)라고 밝혔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37.8%)라는 응답도 많았다.

# 은행 주택대출 금리 또 올라

## 2주만에 연 0.15%p 급등... 이자부담 눈덩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주만에 연 0.15%포인트 급등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연중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26일 현재 연 6.80~7.50%로 지난 주초에 비해 0.11%포인트, 지난 12월에 비해서는 0.15%포인트 급등했다.

국민은행은 6.15~7.75%로 2주 전에 비해 0.14%포인트 올랐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6.39~7.89%, 6.49~7.89%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급증(CD) 금리가 상승세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후 이달 9일까지 5.30~5.35% 사이에서 등락하던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은행권 CD발행 급증 여파로 지난 23일 5.50%로 상승하면서 2001

년 7월5일 이후 6년4개월여만에 5.5%대로 진입했다.

은행권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민 주택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10월말 현재 약 220조원인 주택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

## “중기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필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이 은행 대출에 치우쳐 있어 고수의 채권시장과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9%로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은행 대출 외 다른 채널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비

중은 2001년 이후 1%대를 유지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8%로 확대됐으나 조달금액 자체가 3천354억원 규모로 은행대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금리부 대출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은 2주새 3천3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 조달난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이 CD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는 데다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CD금리와 주택대출 금리의 동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대출에 집중될 경우 경기하강에 따른 연체율 증가시 대출 축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경우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임대아파트 인기

## 주공, 광주 양림지구 949세대 1.8대1 경쟁

광주·전남지역의 주택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국민임대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품질이나 주거환경 면에서 일반 아파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남구 양림지구에 국민임대주택 949세대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1천748명이 몰려들면서 1.8대 1의 경쟁률로 전 평형의 접수가 마감됐다. 이 가운데 36㎡형의 경우 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일반 분양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존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증가 및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추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주공 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며, 사업시행자의 부담위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공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 46㎡, 51㎡, 59㎡ 등 4가지 형으로 공급되며, 임대 보증금이 시중 전세보다 크게 낮고 월세도 8만~14만원 대로 부담이 적다.

실제 36㎡의 경우 일반 전세가가

2천500만~3천만원에 형성돼있지만 주공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천400만원으로, 일반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된다. 입주후 임대기간 설정이나 계약 해지 등이 입주자 임의대로 조정 가능한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주공은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전남본부에 '국민임대주택홍보관'을 열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홍보에 본격 나섰다. 홍보관은 36㎡, 46㎡, 59㎡ 등 3개형의 국민임대주택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도시정비·주거환경사업 등에 대한 영상전시공간이 마련돼 있다. 2층에는 사이버 카페, 미니도서관, 이벤트 부대 등 문화·휴식공간이 제공된다.

이철현 주공 광주전남본부장은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홍보관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6㎡의 경우 일반 전세가가

## “美 서브프라임 장기 침체팬

### 국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세계 유통성의 흐름을 주시하며 주택금융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환경' 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1~2년 내 마무리된다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 주택가격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친 미국 금리가 우리 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간 주택가격상승률 동조화현상은 중장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2년 정도의 단기에는 국내 주택가격이 국내 주택관련 대책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금리 및 유통성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국 주택가격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친 미국 금리가 우리 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올 연말정산 환급 헛물 켤 수 있다

### 간이세액표 시행 따라 예년 보다 감소될 듯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 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예년 보다 줄 수 있어 꼼꼼한 연말정산이 요구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공제액을 조정한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의 경우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로 낸 근로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근로자 상당수는 실제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낸 뒤 연말정

산을 통해 환급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지난해와 같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12분의 5 정도 줄어줄 수 있다.

또 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청은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이를 권장해왔다.

따라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한 경우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액보다 적어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진택배 광산영업소	[한진택배]소사장 및 배송담당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6	062-955-1582
④H&T	[고정급148만원/주5일] SK텔레콤 CRM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1/27	062-350-6333
삼성출판사서광주교육본부	유치원 영어교사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28	062-373-5346
광주유동	인터넷 소프웨어 상품편집 및 웹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514-4667
④동화하이테크	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30	070-7093-6322
고려오토론	광부품 연구 및 개발 관리인력 모집 (석박사 우대)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2-973-7771
이텔리안웨딩	메이크업, 드레스, 고객상담, 포토샵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224-0703
우신	타이어 금형 제작 설계사원 (CAD/CAM)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16-610-0469
④올트네스트	국내영업 및 사무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2-971-3965
AIG손해보험	[AIG 순천 CS 센터]제3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1-906-7632
광주러서리포토	사진촬영기사, 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523-2863
루앤리움식품건조기호총판	[영업/재택/B2B]경력 및 신입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654-0630
엘론서치	[광주]하나로호텔레크 고객센터(연 2,000만)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30	02-6012-9540
④에스비기업	토목엔지니어링 및 토목건설업 일반 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30	062-652-235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로또복권

(제26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7 12 15 24 37 40	43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310,085,575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232,964	26
3 5개 숫자 일치	1,199,422	1,284
4 4개 숫자 일치	52,871	58,258
5 3개 숫자 일치	5,000	933,907

## 팝콘복권

(제8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1조 425498
2	5억	1조 425497 1조 425499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04499
5	1만	각조 406
6	2천	각조 70
		각조 86
7	1천	각조 8
		각조 9